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타난 감정과 뇌의 반응*

안 귀 원

(고려대학교 / 학생)

Ahn, Kwie-weon. Analysis of Brain Activities on Emotions through Language Expression in Shakespeare's Four Great Tragedie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7 (2020): 87-1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some of the key emotions such as despair, anxiety, and anger from the languages used in Shakespeare's four major tragedies — *Hamlet*, *Othello*, *King Lear*, and *Macbeth* — and to examine the responses in the brain triggered by emotions and the possibility of emotions to escalate into disorders. First, the paper analyzes the languages of Hamlet, Othello, Lear, and Macbeth to explain their feelings of despair and depression and brain activation related to these emotions. Second, the study discusse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 through the discourse situations of Claudius, Othello and Desdemona, Goneril and the Duke of Albany, and Macbeth and Lady Macbeth to identify the hormones in the brain that can cause anxiety. Finally, this study explains anger and anger disorders through the words of Hamlet, Othello, Lear, and Macduff exploring the role of the brain in controlling feelings of anger. (Korea University)

Key words: tragedy, brain, despair, anxiety, anger

I. 서론

21세기 들어 학문적 경계를 넘어 융·복합적 연구가 심화되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특징들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매튜와 매케인(Matthews and McQuain 13-20), 맥크럼(McCrum 3310-3313)과 김기호(1-23; 144-253) 등에서 언어와 문학이 뇌 과학 연구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셰익스피어(Shakespeare) 작품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비극, 역사극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언어적 묘사로 표현된 시각, 청각, 후각, 공감, 기

*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입니다.

역, 망각, 명예, 죄책감, 스트레스, 사이코패스 등에 관해 기능성 뇌 자기 공명영상(fMRI),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 뇌파(EGG)와 같은 뇌 영상 촬영 기법으로 뇌 과학에서 어떻게 규명되는지 살펴보았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햄릿』(Hamlet), 『오셀로』(Othello), 『리어 왕』(King Lear), 『맥베스』(Macbeth)에서는 인간의 절망감, 불안, 분노, 복수, 욕망, 질투, 죄책감 등 인간 감정의 비극적 요소들을 절묘하게 표현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아버지의 복수와 주어진 삶에 대한 연명 사이에 끊임 없이 갈등하는 햄릿,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는 오셀로, 막내딸을 추방하고 두 딸에게 버림받으며 고통을 겪는 리어 왕, 그리고 권력욕에 빠진 맥베스의 복잡한 심리를 대사에 잘 녹여두었다. 본고에서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속에 나타난 다양한 감정 중 절망감, 불안, 분노의 3가지 감정을 인물들의 대사와 담화 상황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감정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질병인 우울증, 불안 장애, 분노 장애에 관해 함께 살펴보면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물론 뇌 과학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II. 절망감과 뇌

절망감에 대해서 시오모폴로스와 인암다(Siomopoulos and Inamdar 234)는 불유쾌한 모든 정서적 상태로, 슈나이더(Schneider 12-21)는 자기 조절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신이 지나치게 조정되는 감각을 의미하는 정서적 상태로, 박영남(425)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기대로 우울증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절망감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화자들의 대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작품인 『햄릿』에서의 햄릿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과 숙부인 클로디우스(Claudius)와 서둘러 재혼한 어머니 거트루드(Gertrude)의 행동으로 힘들어하던 중, 아버지 망령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숙부에 의

한 것임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는다. 충격으로 절망감에 빠진 햄릿은 죽음을 고민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망설인다.

햄릿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고귀한가.
 포악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것인가
 아니면 고뇌의 바다에 맞서 싸우다
 끝내야 하는 것인가. 죽는다는 것은- 그저 잠이 드는 것
 그뿐이다; 잠이 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육신이 받는 수천 가지 고통과 마음의 번뇌도,
 이것이야말로 간절히 바라는
 결말이다.

Hamlet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die- to sleep-
 No more; and by a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d. (3막 1장. 1749-1757)

햄릿은 죽는 것은 잠이 드는 것이라 하며 모든 것을 끝낼 것인지 살아서 난폭한 운명에 맞서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매튜와 매케인(212)과 김기호(11)에서도 언급했듯이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근친결혼에 의해 절망감에 빠지고 우울한 심정을 토로한다. 작품 속에서 햄릿뿐만 아니라 오펔리아(Ophelia) 역시 아버지가 햄릿의 손에 죽임을 당하자 충격으로 절망감을 느끼며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결

국 죽음에 이르고 만다. 이렇듯 인생의 주요한 사건들이 우울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오피리아처럼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두 번째 작품인 『오셀로』에서도 절망감이 나타난다. 오셀로는 “그녀의 정절에 내 생명을 바치리!”(My life upon her faith! (1.3. 622))라고 말하며 데스테모나(Desdemona)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고 있었지만, 이 아고(Iago)가 꾸며내는 거짓말로 인해 데스테모나와 카시오(Cassio)가 불륜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데스테모나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고 그녀를 살해하고 난 후, 데스테모나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오셀로는 혼돈과 절망이 극에 달하게 된다.

오셀로

오셀로는 어디로 가야 하나?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오 불운한 여인.

속옷처럼 창백하구나!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 둘이 만난다면

당신의 이런 모습은 내 영혼을 천국에서 내던질 것이고

악마들이 가로채 갈 것이다. 차디찬 내 여인이여.

당신의 정절만큼. 오 저주받은 노예 놈!

악마들아, 날 채찍질해라.

이 천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나를 바람 속에 날려 보내고 유흥불에 태워라!

불타는 심연 속에 깊이 처넣어라!

Othello

Where should Othello go?

Now, how dost thou look now? O ill-starr'd wench!

Pale as thy smock! when we shall meet at compt,

This look of thine will hurl my soul from heaven,

And fiends will snatch at it. Cold, cold, my girl!

Even like thy chastity. O cursed slave!

Whip me, ye devils,

From the possession of this heavenly sight!

Blow me about in winds! roast me in sulphur!
Wash me in steep-down gulfs of liquid fire!

(5막 2장. 3628-3637)

오셀로는 죽은 데스테모나를 보며 그녀가 오셀로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서 내던질 것이고 악마에게 자신을 바람 속에 날려 보내고 유황불에 태워달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처벌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오셀로는 자신의 손으로 데스테모나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절망하고 결국 데스테모나 옆에서 자살한다.

세 번째 작품인 『리어 왕』에서 리어(Lear)는 고너릴(Goneril)과 리간(Regan)에게 기대했던 사랑이 와해되자 코딜리어(Cordelia)의 사랑을 오해하고 내쫓은 것에 대한 잘못을 태풍 속에서 고통을 통해 느끼게 된다. 리어는 코딜리어와 재회하게 되지만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한다.

리어

나를 무덤에서 꺼내다니 당신이 잘못된 일이오.
당신은 천상의 영혼이지만 나는
불 수레에 매달려 눈물이 녹은 납처럼 뜨겁게
나를 지지는구나.

Lear

You do me wrong to take me out o' th' grave.
Thou art a soul in bliss; but I am bound
Upon a wheel of fire, that mine own tears
Do scald like molten lead. (4막 7장. 2961-2964)

코딜리어를 보고 리어가 ‘나를 무덤에서 꺼냈다’고 표현한 것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던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어는 코딜리어를 천상의 영혼으로 칭하면서 리어 자신과 다른 상황에 있

음을 느끼고 리어 자신은 불 수레에 매달려서 눈물이 녹은 납처럼 뜨거워 자신에게 화상을 입힌다고 말하며 내면에서 리어가 겪는 절망감을 드러낸다(조혜영 195).

마지막 작품인 『맥베스』에서는 절망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맥베스 부인(Lady Macbeth)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절망하는 맥베스(Macbeth)를 볼 수 있다. 맥베스는 부인의 병에 대해서 주치의에게 부인의 병은 병이라기보다 망상에 시달려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듣는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양심을 치유하지 못했던 맥베스 부인은 몽유병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부인의 소식을 접한 후, 맥베스는 “이 다음에 죽었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통해 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절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보다는 죄에 대한 처벌로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죽음의 시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맥베스

이다음에 죽었어야 하는데;
 이런 소식에도 맞는 시기가 있었을 텐데.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이렇게 웅졸한 걸음으로 하루하루
 기록된 최후의 시간까지 기어 오고,
 우리의 모든 어제는 바보들의 먼지 같은 죽음 향한
 길을 밝혀 주었지.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촛불!
 인생이란 걸어 다니는 그림자, 가엾은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버티고 걸으며 초조해하다
 사라져 버리는 것, 바보들이 지껄이는
 이야기와 같은데 소음과 분노가 가득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구나.

Macbeth

She should have died hereafter;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ord.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from day to day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ools
 The way to dusty death. Out, out, brief candle!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5막 5장. 2374-2385)

내일을 반복하며 응졸한 걸음으로 기어 온다는 것은 죄를 지은 맥베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맥베스는 자신이 느끼는 더디게 흐르는 시간의 흐름을 반복된 리듬으로 절제하며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는 먼지 같은 죽음을 향한 바보들의 길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죽음을 향해 길을 밝혀 주는 어제와 죽음을 기다리며 응졸하게 걸어오는 내일은 맥베스가 느끼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버남 숲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맥베스는 “태양이 지겹다”(to be awearry of the sun (5.5.2410))고 말하며 인생무상의 우울함을 인생 마지막 순간에 노래하고 있다(조혜영 252-253). 앞에서 작품 속 대사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절망감은 우울증을 야기하기도 하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울증은 누구나 쉽게 겪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즐기는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심의 상실과 지속적인 슬픈 감정이 있고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이어질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강민구 외 123).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 중 약 3분의 2 정도는

자살을 생각하고 이 중 약 10~1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김기호 161). 성균관대학교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 중 자살을 생각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뇌 영상 및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를 분석해서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뇌 속의 주요 원인을 규명하였다(W Myung et al. 2016).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는 전두엽(frontal lobe)과 변연계(limbic system) 기능이 저하되는데, 전두엽 기능이 감소하면 삶의 의욕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변연계 기능이 감소하면 불면증, 식욕 저하, 감정 기복 등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자기공명촬영(MRI)을 통해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생각하면 변연계가 흥분되고, 변연계가 흥분하면 우울증 환자의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전두엽과 변연계 사이의 연결 기능이 줄어들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갑작스러운 아버지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절망에 빠진 험릿, 이아고의 거짓말로 데스테모나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오해하고 결국 살해한 후 사실을 알게 되자 절망에 빠져 자살하는 오셀로, 코딜리어를 쫓아내고 다시 만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절망하는 리어, 그리고 부인의 죽음을 접한 후 절망에 빠진 맥베스 모두 절망감에 빠진 후 우울증을 겪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험릿은 아버지 명령에 약속한 대로 숙부인 클로디어스 왕을 살해하고자 우울증을 극복해내는 것처럼 보이고, 오셀로, 리어, 맥베스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III. 불안과 뇌

정신적 무질서의 주요 증상 중 하나로 여겨지는 불안은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불편한 감정이지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이며 인간이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라캉(Jacques Lacan)은 불안은 욕망의 주체로의 성숙을 촉구하는 요청이며 인간 주체성의 환원할 수 없는 본원

적 정서라고 주장하며 욕망을 불안의 중요한 역할로 보았다(홍준기 234-246).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욕망으로 인해 불안의 감정을 느끼는 화자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햄릿』에서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사람들 의심의 눈을 피하고자 미친 척을 한다. 클로디어스는 겉으로는 햄릿의 실성 원인이 아버지의 죽음밖에 원인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의심하며 햄릿의 동료인 로젠크란츠(Rosencrantz)와 길든스틴(Guildenstern)에게 햄릿이 실성한 이유를 곁에서 알아보라고 지시한다.

클로디어스

그래 대화를 하는 중에 그가 왜 이런
혼란의 모습을 보이면서 조용한 날들을
격렬하고 위험한 미친 짓을 그렇게 심히
부리는지 알아낼 수 없었나?

Claudius

And can you by no drift of circumstance
Get from him why he puts on this confusion,
Grating so harshly all his days of quiet
With turbulent and dangerous lunacy? (3막 1장. 1683-1686)

왕좌에 대한 욕망이 있던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만나고 온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에게 햄릿의 상태를 염려하는 듯 묻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햄릿의 아버지인 선왕을 살해하고 왕좌에 앉은 사실을 햄릿이 눈치 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그로 인한 불안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두 번째로 『오셀로』에서 오셀로의 언어는 주로 데스테모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양극성을 띤다. 자신의 명예와 사랑을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오셀로에게 사랑은 데스테모나의 사랑

을 전제로 하는데,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사랑으로 성립된 사랑은 언제든 상실될 불안을 안고 있다. 사이프러스(Cyprus) 섬에서 데스테모나와 재회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할 때 오셀로의 언어는 사랑과 동시에 상실에 대한 불안을 보인다.

오셀로

내 앞에 선 당신을 여기서 보다니
 내 만족만큼 큰 놀라움을 느낀다오. 오 내 영혼의 기쁨!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항상 이런 평온이 온다면
 죽음을 깨울 때까지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배가 바다의 언덕을
 저 높은 올림포스 산까지 올랐다가 다시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더라도 좋겠소!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완전한 만족을 얻었으니,
 이런 안락이 미지의 운명 속에서도
 계속될지 두렵기 때문이오.

Othello

It gives me wonder great as my content
 To see you here before me. O my soul's joy!
 If after every tempest come such calms,
 May the winds blow till they have waken'd death!
 And let the labouring bark climb hills of seas
 Olympus-high and duck again as low
 As hell's from heaven! If it were now to die,
 'Twere now to be most happy; for, I fear,
 My soul hath her content so absolute
 That not another comfort like to this
 Succeeds in unknown fate. (2막 1장. 974-984)

오셀로에게 천국은 더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정점이며 영혼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지옥은 기쁨을 잃게 되었을 때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와 재회한 것에 대한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오셀로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행복이 계속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랑과 명예가 사회적 인식에 기반한 조건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데스테모나의 사랑은 오셀로 자신의 명예를 입증하는 것이며 자존감을 형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과 명예의 상실은 오셀로에게 자아와 영혼의 상실을 의미한다 (조혜영 111-112).

세 번째로 『리어 왕』에서 리어는 자신의 영토를 고너릴과 리간에게 나누어주면서 자신은 왕이라는 직위를 유지하고 통치권과 조세권은 딸과 사위에게 넘기기로 한다. 이때, 리어는 왕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백 명의 기사들을 보유하겠다고 하는데 백 명의 기사는 리어가 왕의 직위를 유지하며 존중받기 위한 의미로 보이지만 딸들에게 통치권과 조세권을 주고 난 후, 왕으로서 위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고너릴과 리간에게 기사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불안한 존재이다. 고너릴과 리간은 리어의 변덕이 심하고 순간의 서투른 판단과 변덕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유산과 지위를 그의 변덕으로 되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짐작하며 불안해한다. 리어가 기사 백 명을 보유한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좌우하려는 것이므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고너릴에게 남편 올버니 공작(Duke of Albany)이 “글쎄, 지나친 두려움이지 않소.”(Well, you may fear too far. (1.4.858))라고 하자 고너릴은 두려움이 아니라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고너릴

지나친 믿음보다 안전하죠.

위험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느니

그 원인을 없애야죠. 나는 그의 마음을 알아요.

Goneril

Safer than trust too far.

Let me still take away the harms I fear,

Not fear still to be taken. I know his heart. (1막 4장. 859-861)

고너릴은 자신의 집에 있는 리어와 기사들을 보며 기사들이 리어의 신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권력에 강한 욕망을 보이는 리어가 왕으로서 대우에 불만을 품고 왕권을 복귀하려 할 때 필요한 힘이 될 것이라 걱정한다. 실제로 얼마 후 글로스터(Gloucester)의 성에서 리어를 다시 왕으로 추대할 징조가 보이자 리어의 왕권 회복에 대한 고너릴의 예상이 현실적이었음을 보여준다(김미애 178-179). 두 딸은 불안의 원인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리어의 기사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며 리어를 통제하고 리어가 왕권을 되찾으려고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맥베스』에서 세 마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맥베스에게 “글래미스의 영주, 코도의 영주, 왕이 되실 분”이라고 예언하고 벵코(Banquo)에게는 “자손이 왕이 되실 분”이라고 예언하고 사라진다. 글래미스의 영주였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코도의 영주가 된 맥베스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던컨 왕을 살해하게 된다. 던컨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맥베스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마녀들의 예언대로 왕이 되었지만 벵코에게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벵코와 벵코의 아들 플리언스(Fleance)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맥베스는 벵코와 플리언스를 살해하도록 자객을 보낸다.

맥베스

우리가 뱀에 상처를 입히기는 하였지만 죽이지는 못했소.

뱀의 상처는 치유되고 되살아날 것이오. 우리의 서투른 악행은
 옛 이빨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과인이 공포 속에서 식사하고 밤마다
 과인을 떨게 만드는 이 무서운 고통 속에서
 잠을 잘 바에는, 차라리 만물은 해체되고
 천지가 다 무너져라. 광란의 불안 속에 누워
 평화를 얻으려 했는데, 평화는 죽은 자에게로 갔으니
 마음의 고문으로 안절부절 불안해하느니
 죽은 자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소. 던컨은 무덤에서
 삶의 발작 열이 지나간 뒤 평안히 잠들어 있구나.

Macbeth

We have scotch'd the snake, not kill'd it:
 She'll close and be herself, whilst our poor malice
 Remains in danger of her former tooth.
 But let the frame of things disjoint, both the worlds suffer,
 Ere we will eat our meal in fear and sleep
 In the affliction of these terrible dreams
 That shake us nightly: better be with the dead,
 Whom we, to gain our peace, have sent to peace,
 Than on the torture of the mind to lie
 In restless ecstasy. Duncan is in his grave;
 After life's fitful fever he sleeps well; (3막 2장. 1184-1194)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맥베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맥베스는 왕이
 라는 야망은 이루었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였다. 맥베스는 공포 속에서 식
 사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느니 죽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며 죽은
 던컨이 편안히 잠들어 있다고 오히려 부러워한다. 뱅코와 플리언스의 살
 인을 사주한 맥베스는 “뱅크, 그대의 영혼의 날아올라/ 천국을 찾으려면
 오늘 밤 안으로 찾아야 될 것이다”(Banquo, thy soul's flight, / If it find
 heaven, must find it out to-night. (3.1.1164-1165))라고 말하면서 뱅코가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맥베스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살해하려고 하는 뱅코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과 덩컨 왕이 편안히 잘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맥베스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불안한 감정이 생기면 뇌간의 교두에 있는 핵인 청반(locus coeruleus) 용기가 활성화되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 몸을 각성시킨다. 또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뇌의 아편유사물질체계가 활성화 되는데 이는 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위기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불안은 위험을 감지해 신호를 보내고, 몸을 각성시키며 위험에 집중하여 예방과 대처를 하게 도와주지만,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나 두려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후유증이 발생하면 불안 장애가 된다. 불안 장애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병적으로 과도하거나 오래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으로 노출되는 환경에 따라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등),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특정 공포증(고소공포증, 건강염려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강박 장애 등으로 나타난다. 불안 장애는 전두엽, 변연계, 편도체(amygdala)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이나 과다로 인해 불안이 유발된다. 기저핵(basal ganglia)은 심층 변연계를 둘러싸고 있는 뇌의 중심으로 향하는 구조물로 피질하부에 있는 다양한 핵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핵들은 대뇌피질이나 시상, 뇌간 등을 포함한 다른 뇌 부위에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기저핵이 과활성화되면 불안과 초조를 느끼며 긴장하게 되며 공황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Daniel 124-129).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칼 다이서로스(Karl Deisseroth) 교수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분계선조침대핵(bed nucleus of the stria terminalis)을 광유전학을 이용해 자극하여 불안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혔다(Kim et al. 2013). 분계선조침대핵은 달걀처럼 타원 핵과

바깥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쥐의 타원 핵을 자극할 경우 쥐가 불안해했지만, 바깥 부분을 자극할 경우 쥐의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두 부위는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이 둘의 균형이 불안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타원 핵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 부분에서 바깥 부분에 신호를 주면 다른 신경회로로 전달되어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연구팀은 타원 핵 바깥 부분에서 분계선조침대핵의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 뇌의 시상하부나 간뇌 등과 연결되는 3곳의 신경회로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자극하면 쥐가 용감해지거나 호흡이 느려지는 등 불안 반응을 보였고, 쥐의 분계선조침대핵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회로를 막으면 쥐가 몹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도 알아냈다. 위협신호를 인지하면 분계선조침대핵이 작동하고, 이 신호가 시상하부 등으로 보내져 불안 반응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네 작품을 통해 의심, 사랑, 권력, 그리고 왕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불안에 사로잡히는 화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햄릿의 행동으로 인한 의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힌 클로디어스, 데스데모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오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리어와 자신들이 받은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고너윌과 리간, 그리고 뱅코와 플리언스를 살해하려고 하던 맥베스는 불안한 감정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뇌에서는 불안을 유발하는 호르몬들이 활성화되며 불안 장애가 유발되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신체적인 반응들 까지도 동반했을 것이다.

IV. 분노와 뇌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중 기본적인 감정으로 기쁨, 슬픔, 공포, 분노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분노가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다(전경구 3-4). 분노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는 분노를 “실

재하든 마음에 그린 것이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자극과 위협, 불쾌하거나 화나게 하는 상황, 불공정한 상황 등에 대한 반응”으로 여긴다(Reevy 62). 분노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분노는 그에 대해 반응하려는 충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분노는 그 분노를 일으킨 대상에 대해 언어적, 물리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다(하홍규 85-86 재인용).

첫 번째 작품인 『햄릿』을 살펴보면,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얼굴을 보며 햄릿이 슬픔에 차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에게 햄릿이 슬퍼하는 원인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라고 직접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햄릿의 슬픔에 대해 경계한다. 햄릿은 독백을 통해 자신의 슬픔은 아버지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너무 빠른 재혼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햄릿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겨우 한 달, 가엾은 아버지의 시신을
 니오베처럼 울며불며 따라가며 신었던
 그 신발이 닳기도 전에 - 아니, 그녀가, 심지어 그녀가
 (오 하느님! 이성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더 오래 슬퍼했을 텐데) 내 삼촌과 결혼하다니;
 헤라클레스와 내가 다르듯이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내 삼촌과
 아버지의 동생과 결혼했어. 한 달 내에,
 쓰라려 붙어진 그녀의 눈에서
 가장 부당한 눈물의 소금기가 가시기도 전에
 결혼하다니. 오, 지독히도 사악한 속도로다! 그렇게
 민첩하게 근친상간의 이부자리로 뛰어들다니!
 이건 좋지 않고, 잘 될 리가 없는 일이지!
 그러나 가슴아 터져라, 왜냐면 입은 닫아야만 하니까!

Hamlet

Frailty, thy name is woman!-

A little month, or ere those shoes were old
 With which she followed my poor father's body
 Like Niobe, all tears- why she, even she
 (O God! a beast that wants discourse of reason
 Would have mourn'd longer) married with my uncle;
 My father's brother, but no more like my father
 Than I to Hercules. Within a month,
 Ere yet the salt of most unrighteous tears
 Had left the flushing in her galled eyes,
 She married. O, most wicked speed, to post
 With such dexterity to incestuous sheets!
 It is not, nor it cannot come to good.
 But break my heart, for I must hold my tongue!

(1막 2장. 350-363)

햄릿은 어머니를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하고 아버지의 장례식이 얼마 지나지 않고 결혼한 어머니를 보며 “이는 좋지 않고, 잘 될 리가 없는 일”이라며 상황의 이면에 수상함과 배신감을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간 어머니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여자인 오페리아를 향해서도 드러내고 있다. 햄릿이 오페리아를 비난하며 “수녀원으로 가!”(Get thee to a nunnery! (3.1.1814))라고 외치는 말속에는 어머니로 인해 육체의 오염과 성적 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환상을 드러내고 여성과의 결혼에 강한 거부감과 여자들의 위장된 순진함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조재희 200).

두 번째 작품인 『오셀로』에서 이야고는 오셀로가 데스테모나와 카시오의 부정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오셀로에게 숨어서 자신과 카시오와의 대화를 지켜보라고 한다. 이야고는 카시오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과 그의 연인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일부러 연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대화를 주도하며 오셀로에게 카시오가 말하는 연인이 데스테모나라고 생각하

도록 만든다. 이아고와 카시오의 대화 도중 카시오의 손에 있는 데스테모나의 손수건을 본 오셀로는 카시오의 연인이 데스테모나라고 확신하며 분노를 표출한다.

오셀로

그래, 그녀를 찌어 없애지게, 그리고 오늘 저녁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거야;
살려두지 않을 테니까: 그래, 내 가슴은 돌처럼 변했고;
가슴을 치니 내 손이 아프구나. 오,
이 세상에 더 감미로운 여자는 없지:
그녀는 황제 곁에 누워 그에게 임무를 줄 수 있으니까

Othello

Ay, let her rot, and perish, and be damned to-night;
for she shall not live: no, my heart is turned to
stone; I strike it, and it hurts my hand. O, the
world hath not a sweeter creature: she might lie by
an emperor's side and command him tasks

(4막 1장. 2512-2516)

이아고와 카시오의 대화를 통해 데스테모나와 카시오의 부정에 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며 분노가 가득 찬 오셀로는 이성을 잃고 카시오의 연인이 데스테모나가 아닌 다른 여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 오셀로는 “목을 매달아야지!”(Hang her! (4.1.2618)), “그녀를 난도질 할 테다. 불륜을 저지르다니!”(I will chop her into messes. Cuckold me! (4.1.2631))라고 분노를 표출하며 데스테모나를 살해하려 한다.

세 번째 작품인 『리어 왕』에서 리어는 딸들에게 영토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고너릴, 리간과 달리 코딜리어가 진솔하게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자 리어는 코딜리어가 자만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딸을 내쫓는다. 켄트(Kent)는 리어에게 코딜리어의 사랑은 가장 적지 않다고 경솔한 행동

을 멈추라고 직언하자 켄트에게도 자만심이라며 분노하고 그도 쫓아낸다.

리어
들어라, 역적아!
충성심이 있다면 들어라!
너는 짐이 감히 해 보지 않은 언약을
깨게 하려 하였고, 자만심이 지나쳐
짐이 내린 판결과 권력에 끼어들었다.
그건 짐의 성질이나 지위로는 참지 못하는바
짐의 힘을 발동하여 너에게 보답하마.
닷새를 주겠노라. 그동안에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막아 줄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옛새끼에는 미움 받는 등을 돌려
나의 왕국을 떠나거라.

Lear
Hear me, recreant!
On thine allegiance, hear me!
Since thou hast sought to make us break our vow-
Which we durst never yet- and with strain'd pride
To come between our sentence and our power,-
Which nor our nature nor our place can bear,-
Our potency made good, take thy reward.
Five days we do allot thee for provision
To shield thee from diseases of the world,
And on the sixth to turn thy hated back
Upon our kingdom. (1막 1장, 178-188)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코딜리어와 진정한 충신이라고 믿었던 켄트의 직언에 리어는 분노한다. 코딜리어를 내쫓는 것을 켄트가 저지하자 리어는 “용과 용의 분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Come not between the dragon and his wrath. (1.1.127))고 하는데, 자신을 용으로 표현하는 것은 왕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왕권이란 그 자체의 힘을 의미하는데 왕권을 과시하는 것은 역으로 리어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코딜리어가 왕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통해 리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자아 확보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김미예 240-241; 성기서 9).

마지막 작품인 『맥베스』에서 던컨 왕과 벵코를 살해한 후 환영에 시달리던 맥베스는 다시 마녀들을 찾아가게 된다. 마녀들은 파이프의 영주 맥더프(Macduff)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사라지고, 맥더프가 영국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맥베스는 맥더프의 성으로 가서 맥더프 부인과 아들은 물론 성안의 사람들을 살해한다. 맥더프는 영국에서 멜컴(Malcolm) 왕자를 만나 맥베스를 처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도중에 로스(Ross)를 통해 맥베스가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멜컴

남자답게 처리하시오.

Malcolm

Dispute it like a man.

맥더프

그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답게 느끼기도 해야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은 방관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죄 많은 맥더프.

너 때문에 다 죽었구나! 죄 많은 사람은 바로 나다.

그들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참변을 당했다니. 하늘이시어 이제 고이 쉬소서!

Macduff

I shall do so;

But I must also feel it as a man:
 I cannot but remember such things were,
 That were most precious to me. Did heaven look on,
 And would not take their part? Sinful Macduff,
 They were all struck for thee! naught that I am,
 Not for their own demerits, but for mine,
 Fell slaughter on their souls. Heaven rest them now!

(4막 3장. 2103-2111)

맥더프는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맥베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남자답게 처리하라는 멜컴 왕자의 말에 맥더프가 그리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맥베스를 향한 분노를 전쟁을 통해 맥베스에게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분노는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이며 중요한 감정이지만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분노의 감정은 뇌의 편도체와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 편도체에서 느끼는 감정을 전전두엽이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전전두엽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감정 처리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분노는 드러내거나, 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적으로 분노가 표출될 때 분노 장애라고 한다. 분노 장애 종류는 미국정신의학회가 마련한 진단체계(DSM-5)에 따라 간헐적 폭발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적대적 반항 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5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간헐적 폭발 장애이고 흔히 '분노 조절 장애(anger disorder)'라고 한다. 분노 조절 장애 원인은 크게 환경적, 유전적, 신경생리학적 요인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환경적 요인은 유년 시절의 안 좋은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 분노에 취약한 성격을 형성하고, 성

장 과정에서 정신적인 외상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유전적 요인은 부모에서 자녀로 정신적인 부분이 전가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신경생리학적 요인으로는 뇌에서 중요한 화학적 전달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감소하여 문제를 일으켜 분노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에밀 코카로(Emil Coccaro) 박사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 사람의 뇌 구조가 정상인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Coccaro et al. 2016).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 57명, 정신질환을 앓는 58명, 정상인 53명 총 168명의 뇌를 스캐닝(scanning)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과 정상인들에 비해 회백질(gray matter)의 부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백질이란 뇌와 척수에서 신경세포체가 밀집되는 부분으로 뇌와 척수의 조직을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회백색을 띠는 부분이다. 코카로 박사는 회백질은 신경 세포와 수상돌기, 무수신경돌기 등이 차지하고 있고 정보 처리와 인지 기능, 정서 조절 기능 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회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서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상인에 비해 더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작품에서 햄릿, 오셀로, 리어, 그리고 맥더프의 분노 감정은 그 순간의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나 살해의 의지로 확대되었다. 햄릿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어머니의 행동으로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오피리아에게 확대되었고, 이아고의 계략으로 데스테모나와 카시오의 부정을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게 된 오셀로의 분노 감정은 데스테모나와 카시오를 살해하려는 의지로 확대되었다. 코딜리어의 진술함에 대한 리어의 분노는 직언하는 충신 켄트에게 왕권을 행사하며 추방하는 것으로 분노의 감정이 확대되었다. 가족이 맥베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맥더프의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전쟁을 통해 맥베스를 처단하려는 의지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햄릿, 오셀로, 리어, 그리고 맥더프의

분노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고 다른 상대에게까지 확대되거나, 살해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추측해본다.

V. 결 론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통해 절망감, 불안, 분노의 감정과 이러한 감정들이 질병으로 심화될 수 있으며,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다. 『햄릿』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숙부 클로디어스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후 느끼는 햄릿의 절망감, 어머니 거트루드의 빠른 재혼에서 느끼는 분노, 그리고 클로디어스가 햄릿이 자신의 악행을 알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셀로』를 통해 데스테모나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고 살해 후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오셀로가 느끼는 절망감, 데스테모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상실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이아고의 계략으로 데스테모나와 카시오의 부정을 확신하며 분노에 찬 오셀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리어 왕』을 통해 코딜리어를 추방하고 고너릴과 리간 두 딸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코딜리어와 재회한 후 느끼는 리어의 절망감, 리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위한 욕망과 고너릴과 리간이 아버지에게 받은 권력 유지를 위한 욕망으로 인한 불안, 그리고 직언을 하는 코딜리어와 켄트에게 느끼는 리어의 분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맥베스』를 통해 절망으로 인한 부인의 자살과 맥베스 자신의 처지에 대해 느끼는 절망감, 왕이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불안을 겪고 있는 맥베스의 모습, 그리고 맥베스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살해되자 분노하는 맥더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각 작품에 나타난 절망감, 불안, 분노의 감정이 뇌에서 어떤 과정과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감정들이 심화될 경우 겪을 수 있는 질병인 우울증, 불안 장애, 분노 장애에 관한 연구를 함께 살펴보았다.

셰익스피어는 희극, 비극, 역사극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그려 내고 있다. 또한, 작품 속 언어 표현을 통해 감정으로 인한 질병과 뇌의 반응과 모습을 교묘히 숨겨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언어적 표현과 질병, 뇌 과학과 연결 지어 살펴봄으로써 언어, 심리학, 뇌 과학 등 학문적 경계를 허물어 융·복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 용 문 헌

- Bansal, Ravi, David J. Hellerstein, and Bradley S. Peterson. "Evidence for Neuroplastic Compensation in the Cerebral Cortex of Persons with Depressive Illness." *Molecular psychiatry* 23 (2018): 2375-83.
- Cho, Hye-young. *Despair in Shakespeare's Four Great Tragedies*. Ph.D.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5.
[조혜영.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타난 절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Cho, Jae-hee. "Maternal Fantasies of Gertrude and Hamlet's Repression on Ophelia."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2 (2012): 197-227.
[조재희. 「햄릿」: 거트루드에 대한 모성 환상과 오피리아에 대한 억압. 『신영어영문학회』 52 (2012): 197-227.]
- Chon, Kyum-koo. "A Step towar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nger."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7 (2000): 1-31.
[전겸구. 「분노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시도」. 『미술치료연구』 7 (2000): 1-31.]
- Coccaro, Emil F., Daniel A. Fitzgerald, Royce Lee, Michael McCloskey, and K. Luan Phan. "Frontolimbic Morphometric Abnormalities in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and Aggression." *Biological Psychiatry: Cognitive Neuroscience and Neuroimaging* 1.1 (2016): 32-38.
- Daniel G. Amen., trans. HanSook Ahn. *Change Your Brain*. Seoul: Hanmunhwa, 2002.
[다니엘 G 에이먼. 『당신의 뇌를 점검하라』. 안한숙 역. 서울: 한문화, 2002.]
- Ha, Hong-Kyu. "Seeing Anger—Emotion and Social Context." *The Journal*

- of Gamsung* 6 (2013): 79-116.
 [하홍규. 「분노를 보다-감정과 사회적 맥락」. 『감성연구』 6 (2013): 79-116.]
- Hong, Jun-Ki. “A Study on Anxiety and Its Subjects.”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17 (2001): 234-267.
 [홍준기. 「불안과 그 대상에 관한 연구」. 『현상학과 현대철학』 17 (2001): 234-267.]
- Kang, Min-gu, Lee, Sang-in, and Lee, Hu-seung. “The Social Support of Teachers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Economic Stres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18.2 (2018): 120-47.
 [강민구, 이상인, 이후승.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우울과 경제적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8.2 (2018): 120-47]
- Kim, Kee-ho. “The Brain, Mind, and Language through Language Expressions of Diseases in Shakespeare’s Works.”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88 (2019): 1-23.
 [김기호. 「셰익스피어 작품 속 정신질환 등 질병 기술 표현에 나타난 언어와 심리 및 뇌와의 관계」. 『언어과학연구』 88 (2019): 1-23.]
- . *Blind Love in the Brain*.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2020.
 [김기호. 『눈먼 사랑과 뇌; 셰익스피어와 함께하는 뇌 과학 이야기』.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Kim, Mi-ae. “Shakespeare’s Masculine Female Figures in King Lear.” *Shakespeare Review* 53.2 (2017): 171-197.
 [김미애. 「셰익스피어의 [리어왕](King Lear)에 나타난 남성적 여성들」. 『Shakespeare Review』 53.2 (2017): 171-197.]
- Kim, Mi-ye. “Understanding Self in Shakespeare’s Tragedies.” *Shakespeare Review* 42.2 (2006): 233-80.
 [김미예. 「셰익스피어 극을 통한 인간이해 - 비극을 중심으로」. 『Shakespeare Review』 42.2 (2006): 233-80.]
- Kim, Sung-Yon, Avishek Adhikari, Soo Yeun Lee, James H. Marshel, Christina K. Kim, Caitlin S. Mallory, Maisie Lo, Sally Pak, Joanna Mattis, Byung Kook Lim, Robert C. Malenka, Melissa R. Warden, Rachael Neve, Kay M. Tye, and Karl Deisseroth. “Diverging Neural

- Pathways Assemble a Behavioural State from Separable Features in Anxiety.” *Nature* 496.7444 (2013): 219-23.
- Matthews, Paul and Jeffrey McQuain. *The Bard on the Brain: Understanding the Mind through the Art of Shakespeare and the Science of Brain Imaging*. New York: The Dana Press, 2003.
- McCrum, Robert. “‘Perfect Mind’: On Shakespeare and the Brain.” *Brain* 139.12 (2016): 3310-313.
- Myung, M., C. E. Han, M. Fava, D. Mischoulon, G. I. Papakostas, J-Y Heo, K. W. Kim, S. T. Kim, D. J. H. Kim, D. K. Kim, S. W. Seo, J-K Seong and H. J. Jeon. “Reduced Frontal-subcortical White Matter Connectivity in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Translational Psychiatry* 6.6 (2016): e835-e835.
- Park, Young-nam. “Hopelessness Depression: Is it a Meaningful Subtype of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4.4 (2005): 425-31.
[박영남. 「절망감 우울증 : 의미있는 우울증의 아형인가?」. 『신경정신의학』 44.4 (2005): 425-31.]
- Schneider, Judith Simpson. “Hopelessness and helplessnes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18.3 (1980): 12-21.
- Siomopoulos Gregory and Subhash C. Inamdar. “Developmental Aspects of Hopelessness.” *Adolescence* 14.53 (1979): 233-39.
- Sung, Ki-suh. “King Lear: A Vision of Self-expansio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Humanities* 5 (1996): 121-52.
[성기서. 「King Lear: 자아확장의 비전」. 『인문과학연구』 5 (1996): 121-52.]
- Reevy, Gretchen M. *Encyclopedia of Emotion*. Santa Barbara: Greenwood, 2011.

rosakw325@korea.ac.kr

논문접수일: 2020. 10. 1 / 수정완료일: 2020. 11. 22 / 게재확정일: 2020. 11. 25